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의 고난은 속히 끝난다는 믿음 갖기를

12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대예배실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였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테러, 그리고 파병 문제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권과 경제의 불안 및 세대와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시로 인한 자살과 이혼률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붕괴등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조용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담임목사는 5일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거

룩한 이로 오신 예수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속히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또한 5일간 교역자 및 당회원,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및 권찰 등이 하루씩 맡아 특별 찬양의 시간을 담당했다.

겨울 새벽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했으며, 새벽기도회 30분 내지 1시간 이전부터 나와 차량 주차를 안내해준 차량 안내부와 떡과 빵, 우유와 차를 나누어준 봉사부의 사랑의 수고의 손길도 있었다. 매년 찾아오는 대강절이지만 올해만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가는 시간이었다.

[순천, 군산 성탄선물 배달]

산타를 찾습니다.

순천어린이마을과 군산모자원에 보낼 성탄선물 배달봉사 자원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230여명분의 부피가 있는 선물이므로 봉고나 트럭을 갖고 계시거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성도로서, 12월18일까지 편리한 시간에 배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남장회 집사(016-502-8287)에게 문의바랍니다.



[교사 Motivation Training]

교회교육이 교회와 나라의 희망!

120여명 교사의 뜨거운 기도로 이어져

교사 Motivation Training이 11월 25일 1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교회교육을 사랑하는 120여명이 모였고 김현령 전도사의 인도로 둔감해진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기쁨을 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임성빈교수(장신대 윤리학)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4~16절 말씀을 통해 강의를 하였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사는 도전을 주는,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과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교사와 공과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와의 차이점은 분명 문제다. 학생과 뭔가를 주려고 하는 교사사이의

접촉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나타나지 않는다. 영향력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전할 상대방의 문화코드(code)가 무엇인가? 를 잘 살필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와 나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교사는 전근대문화사회나 근대문화에 속한 사람이다. 전근대문화는 토다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아왔다. 그래서 순종하면 좋다고 한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에 권위가 있던 시대가 바로 전근대사회인 것이다. 근대문화는 어떠한가? 이성을 중시하여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학교가, 교사가 권

위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학교의 어린이, 학생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들은 대중문화에서 보면 읽어들 수 있듯이 권위를 싫어하는 저항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 또 명품을 밝히는 소비문화를 지향한다. 왜? 나를 찾기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근대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노력에 교회교사들은 공황,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성과 창의성을 찾아야 한다.

앞서 교사는 줄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교회교사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몸부림치지만 내가 누군지 답을 못찾는 세대에 대해서 복음(내가 누구냐)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창조주, 만든 분이 알 수 있다. 교사는 비밀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샅꾼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전근대, 근대의 장점인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헌신으로 품을 수 있다. 녀석들 왜 저래라고 생각지 말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자. 또한 현세대들이 지닌 사이버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자. 비록 보람, 피드백이 없더라도 어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칭찬을 주실 것이다.

임성빈교수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재담으로 인해 중간중간 웃음이 터졌고 웃음속에서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아들과의 여러 가지 예화를 들려주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공감대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격려해주었다.

문동학 목사는 “교회학교가 나라의 희망입니다. 두렵지만, 용기가 없지만 현세대의 문화를 배우는

길게 늘어선 줄만큼 기쁨도 커

11월23일(주일) 지하에서 고등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징검다리 먹거리 마당을 열었다. 성도들의 징검다리 운동은 구약시대에 추수할 때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조금 남겨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나게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조금씩 조금씩 떼어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보내는 운동으로 고등부에서는 2년 동안 해 오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영화 보면서 할인된 TTL카드의 20%를 내기도 하고, 공짜밥을 먹을 때 그 밥값으로 징검다리를 놓기도 하며, 화날때마다 일정양의 물질을 봉투에 넣어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선생님들도 시장보시면서, 주유하시면서, 식사를 대접받으실 때 그 만큼의 양으로 징검다리를 놓고 계신다. 이렇게 징검다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경제적 실천이 되고 있다.

징검다리 운동은 매년 두 번씩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고등부는 토요일에 함께 모여 고구마를 벗기고, 튀기며, 음식들을 준비했다.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팠지만 징검다리를 놓는 일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다. 주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줄을 지어 먹거리 마당을 찾았을때 봉사자의 손놀림은 바쁘게 움직였다. 출기도하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여유있고, 행복했다.

계속되는 징검다리 운동을 통해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연합찬양대]

1시간 성탄축하 '메시아'를 위한 두달의 연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고 좋지만 특히 겨울은 성탄절이 있어서 무척 좋은 계절인 것 같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된 약속인 '메시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시온-살롬 연합찬양대는 금년 성탄 축하 음악예배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

앙간증이기도 하다. 참된 찬양은 노래를 부르면서 곡과 가사를 쓴 사람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번 '메시아' 공연을 위하여 시온-살롬 연합찬양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준

비를 하고 있다.

11월에는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토요일에도 찬양연습을 하게 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찬양대원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바쁜 중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무대에서 연주하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이겠지만 그 연주시간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찬양대원들은 찬양연습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며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도 더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지휘자 박치용 안수집사와 반주자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찬양대원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열심으로 이번 성탄축하음악 '메시아'는 어느 해보다 멋진 연주가 될 것을 기대해 보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보다 많은 기도와 성탄절 음악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진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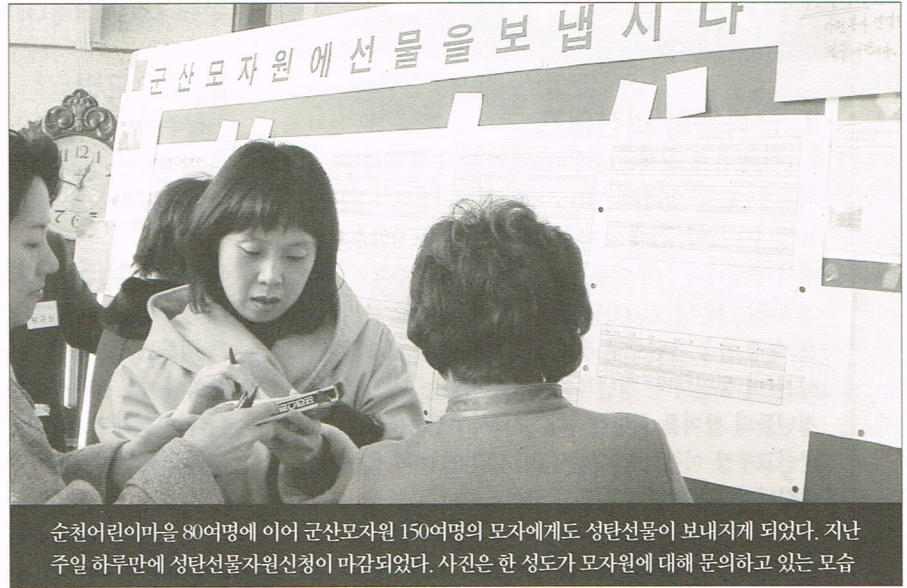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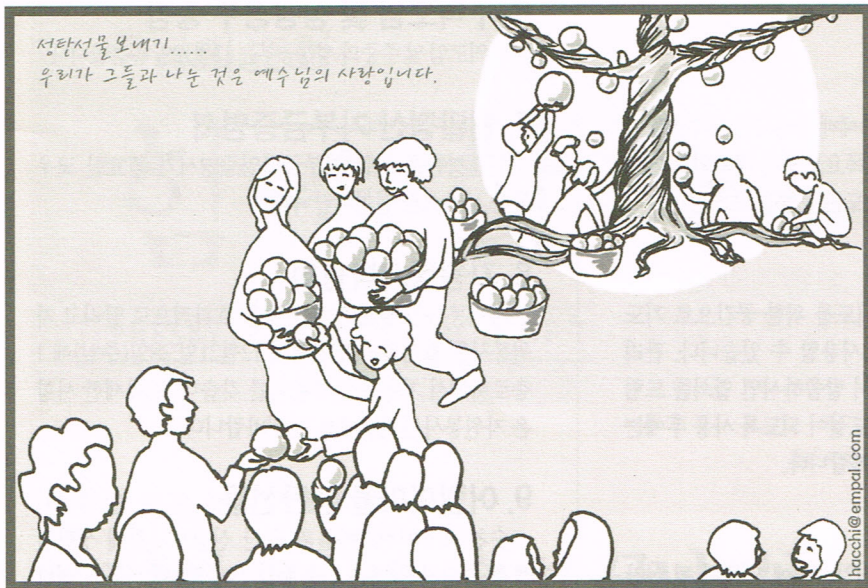
또 하나의 선교 영상미디어!

영상미디어부는 영상미디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증진 및 선교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교회행사 관련 영상미디어를 제작하여 역사자료로 보존할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방영하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설교 및 선교 관련 자료를 영상미디어로 제작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증진 및 선교를 지원하며, 신앙강좌나 세미나 등을 영상미디어로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신앙교육자료를 영상미디어로 제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만든다.

영상미디어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고 계속 해나갈 것이다. 주일설교를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인터넷, 즉 교회 홈페이지나 기독교TV 홈페이지로 전달하여 성도들의 신앙증진에 도움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세례식 등 교회행사를 기념 촬영하여 사진도 전달하여 신앙적으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한 편의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일예배시간에 방영했으며, 해바라기 콘서트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사진과 비디오로 교회행사를 촬영하여 역사자료로 보존하며, 주일예배시 영상방송을 지원하여 성도들이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고 있다.

지금은 영상미디어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시대이다. 기존 텔레비전 방송을 넘어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비디오, DVD, 인터넷 등을 통해 매일 엄청난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영상미디어부는 주님의교회 성도의 신앙증진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증진과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양인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의 영상물이 제작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영상미디어부 역시 많은 동역자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획, 연출, 방송작가, 카메라, 조명, 음향, 영상편집, 사진 촬영 등 여러 분야의 영상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소수의 동역자와 초보적인 제작환경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영상미디어부를 함께 설계하며, 기초를 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할 동역자가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태재승 집사



[자원봉사 연결보고]

따뜻한 성탄절을 소망하며

이어진 두주일의 자원자행렬

11월16, 23일 두주일에 행해진 성탄선물보내기 자원 신청이 모두 마감되었다. 순천의 SOS어린이마을의 80여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성탄선물목록에 성도들이 빈칸을 메우는 것으로 시작되어, 군산의 신평모자원의 150여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의 성탄선물목록으로 이어져 두주일만에 모두 마감되었다.

두 주 동안 각각 2, 3부 예배가 끝난 직후 성도들이

몰리면서 3시간여만에 채워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약 230여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성탄선물을 받게 되었다. 신평모자원의 원장이며 사회복지사인 김미숙H 집사는 이번 겨울에는 모자원식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어린이의 선물목록은 성도들의 공감대가 있지만, 어머니들의 전기장판 같은 선물목록은 호응이 없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모두 채워진 것이다. 선물목록에 자원한 성도들은 다음주일(12월14일)까지 1층로비 자원봉사 연결데스크로 선물을 가져오면 성탄절에 맞춰 보내지게 될 것이다. 성탄카드도 꼭 잊지 말고 선물속에 넣어주길 당부한다.

[계수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교회내 이러한 기관이 있을까 의아해하겠지만 계수부가 그렇습니다. 전체 교인들 중 몇 명이 계수부 봉사자가 누군지 알까? 또 계수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수부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취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돈이라는 투명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둘째, 헌금 수거시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산이신 문창복 재정 위원장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항상 기도로써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1부 계수는 나에게 맡겨라

이른 시간인데도 7시 1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1부 팀장이신 이봉우 집사님과 김예곤 집사님. 1년 열두 달 주일을 한번도 빠지지 않는 두 분이 계시므로 계수부는 걱정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정종국, 김천희 집사님과 항상 웃으면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시는 김창균, 김성희 집사님 모두가 1부 계수부의 일꾼입니다.

2부는 팀장이신 이석 집사님과 모철민 집사님이 계시므로 언제나 활기참니다. 유머와 기지가 넘치는 모집사님의 말씀에 역시 기민한 응답으로 대응하시는 이석 집사님의 활기차고 신속히 일하시

는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음을 느낍니다.

만원 묶음에서 귀신같이 십만원권 수표를 찾아내시는 송승엽 집사님과 이연숙 집사님께서는 1부 찬양대를 하시고도 2부 계수부를 도우시느라 정말 바쁘십니다. 특히 국수 친교하시느라(?) 잘 늦으시는 송집사님과 헌금을 봉헌위원에게 전달하시는 파트너이신 김용일 집사님은 정말 영국신사 같습니다. 관록과 경륜이 넘쳐 흐르는 모습에서 한국의 현재를 이루어낸 일등 코리아의 모습을 읽습니다.

십일조 담당이신 박귀희 집사님과 김청자 집사님은 조용하시면서 차분히 맡은 일을 너무나 잘 해내십니다. 이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3부는 1,2부 헌금과 3부 헌금을 집계해서 은행호송단에게 헌금을 인계하고 집계표를 교회사무실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일에 이집사님의 실력(?)이 없으면 3부 계수부는 오후 1시30분이 되어도 퇴근(?)이 어렵습니다.

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들어오는 헌금은 10만원짜리 동전부터 만원권까지 다양합니다.

수많은 동전을 세느라 항상 손톱 밑이 까매진 손철규집사님. 대한민국 최고은행(?)의 지점장이신 손집사님의 동전 세는 모습을 은행 직원들이 보았을 때 어떠

할까? 궁금해집니다.

언제나 바쁜신 임창남 집사님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집계를 해주십니다. 재미있는 말과 유머로 3부를 즐겁게 해주시는 수퍼맨이십니다.

3부의 유일한 여집사님이신 이은우 집사님 때문에 3부는 늘 즐겁고 명랑합니다. 이집사님께서는 손수 떡도 만들어 우리를 먹이십니다.

3부에서 가장 연로하시면서도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하장용 집사님과 김청옥 집사님은 3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예배실부터 3층, 지하 중강당까지 헌금을 수거하고 갔다오시면 숨이 차서 한참서 계십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수고하도록 만드는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봉헌위원에게 헌금을 인계하는 시점이 주기도송(응답송) 중에 “대개”가 나오면 계수실에서 출발 봉헌위원에게 헌금을 인계하도록 항상 시행해 왔는데 10월 어느주일에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응답송 없이 봉헌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하장용 김청옥 집사님 얼굴이 노래지며 급히 옷을 입고 헌금을 들고 머리칼을 휘날리도록 뛰었으나 이미 늦은 일...헌금이 오지 않아 봉헌위원들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사태를 알게 되신 우리 목사님은 봉헌송을 한번 더 하도록 하시고...아? 이제 “대개” 신화는 끝났구나 목사님 기도하실 때 미리 들어가

야지 다집합니다

전주 일요일 헌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고 다음 일요일에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저에게 “10,000원권에서 1,000원이 나왔대요” 등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 계수실에 오면 항상 오늘도 무사히를 항상 기도합니다.

1,000원권 10,000원권을 계수기계에 넣고 셀때면 기계는 정말 빠르게 묶음을 세어 주는데 십만원권만 넣으면 계수기가 갑자기 엄청 느려집니다. 역시 기계도 돈의 가치를 아는가 봅니다.

새돈, 헌돈, 구겨진 돈 각각각색의 지폐가 계수실에서 세탁을 합니다. 죽 펴고 털고(계수기에 넣으면)하니 실내는 돈 먼지로 가득합니다. 환풍기로는 깨끗이 안되어 계수 끝나면 가끔 목이 매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계수부원들은 아무리 공기가 나빠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즐겁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다는 즐거움에 항상 바쁘답니다. 또한 저희는 성도 여러분의 헌금을 십원 동전 하나까지 정성껏 확실하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꿈인 번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집사

{교회소식}	
1. 군복음화 비전캠프 민족복음화, 군복음화의 비전을 안고 군에 입대하는 기독교청년들을 위하여 2003군복음화 비전캠프가 12월 10일(수)-12일(금)에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소재)에서 열립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주제로 참가회비는 1인당 30,000원(교회에서 제공)이며, 준비물은 성경,찬송,세면도구,필기도구,간편한 옷,반명함판 사진1매 등입니다. 청년복음화에 관심있는 모든 남녀 청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교회사무실(416-5181), 군선교부장 이종석 안수집사(011-272-0324)에게 문의 바랍니다.	3. 목요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7시에 중예배실에서는 예수전도단과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의 목요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2. 의료 선교부 한해를 보내며 올해의 의료 선교부 국내외 활동 반성과 새해의 활동 계획을 의논하고 친교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의료 선교부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비전문인이나 의료 전문인 약사, 간호사, 의사 등의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김광일 집사(017-232-	4. 한울장로성가단 초청연주회 수도권에 사는 45세에서 76세의 초교과장로로 구성되어있으며, 창립4주년을 맞이한 한울장로성가단을 초청하여 10일(수요일) 수요성경 공부시간에 연주회를 갖습니다. 5. 도서실(5층) 개방 도서실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신앙서적 및 일반서적을 계속 기증받고 있으며, 추천해주시는 도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월요일은 휴관)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구역모임 및 성경공부 종강 구역모임 및 주중의 성경공부는 12월12일 종강합니다. 7. 연말정산 기부금증명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교우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8.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2월21일,28일(주일)에 1층로비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연결팀에게 문의바랍니다. 9. 어린이마울 성탄선물 순천 SOS어린이마울과 군산 신광모자원에 성탄선물을 자원하신 분은 다음주일(14일)까지 선물을 성탄카드와 함께 준비하셔서 자원봉사테스크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

12월 3일(수), 저녁 8시에 세례 및 입교예식이 중예배실에서 있었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평생 되뇌이며 살기를 권하였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부른 후 6명씩 짝을 지어 단상 위로 올라가고, 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앙간증을 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짝막한 기도시간이 있은 후 세례식이 시작되었다.

총 22명의 세례자와 2명의 입교자가 있었다. 이제까지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마침기도로 끝을 맺고, 모든 세례자와 입교자를 축하하는 박수와 꽃다발이 이어졌다.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강경숙, 강재구, 김경진, 김영민, 김완희, 김채수, 김철한, 김학덕, 동경숙, 김 형, 김효립, 도재성, 노형래, 김형순, 박초희, 성낙규, 성수웅, 성은이, 이지영, 이원용, 임규형, 최석주이고, 입교자는 김선미와 김명주였다.

교사 Motivation Training (1면에서 계속)

교사가 됩시다. 염려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현세대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등의 말씀으로 교사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2004년도부터 주님의교회는 주일 2~4부 예배에 통합 유아,아동부를 개방하고, 수요일예배에 탁아부서 신실등의 비전을 이루어가려 한다.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소외되지 않고 맘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교회가 되도록 교우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웃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들은 뒤 교회학교를 사랑하는 이들은 저녁만찬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신지민 기자

용기짐을 지고

정 해 춘 안수집사

입동 지나 살바람 부는
한강 둔치에 서서

강건너 아이들이 날리는
방패연을 바라본다.

천명으로 다가오는 세월
또 한 해는 그렇게 가고마는가.

목쭙은 여울의 해살에도
강물은 아무 말이 없다.

그냥 시간을 아끼라고
생명으로 그린 하얀 손수건을 건넬 뿐...

나는 아버지처럼 용기짐을 지고
오늘도 철새를 따라 길을 간다.

시그날도 없는 주갑의 고개에는
노란 은행잎이 맴돌며 떨어진다.

하늘이 천천히
멀리서 내게로 다가온다.

[소년부 추수감사절 친구초청잔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

11월16일(주일) , 소년부에서는 추수감사절 특별찬양예배와 함께 친구 초청잔치를 하였다. 학교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9 일(주일) 소년부 어린이들은 친구들을 초대하기 전 예배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예배시간 후 풍선아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모두가 매우 재미있고, 신기해 하면서 예배실을 꾸몄다.

그리고 16일(주일) 추수감사절 특별예배 친구초청잔치를 하게 되었다. 소년부 어린이들은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선생님들은 소년부 어린이들과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떡볶이와 오뎅, 과일을 마련했고, 예배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설교와 영상등을 준비해서 예배에 재미를 더했

다. 그리고 특별 초청된 청년 부 찬양 팀 young H.O.N의 worship dance 공연으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예배 후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존의 딱딱했던 예배순서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재미있고 즐겁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년부는 앞으로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